

불편한 ‘말 걸기’와 편의점, 공감의 회복과 확산 -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021) -

이행선*

I. 들어가며 : 2021년 편의점과 소통

2021년 4월 작가 김호연¹⁾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출간된 이래 40만 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어 2021년 올해의 책에 선정되고 해외 6개국에 판권 수출이 이루어졌다. 책이 출간된 지 1년여가 된 2022년 3월에도 교보문고 4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²⁾ 이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1) 김호연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첫 직장인 영화사에서 공동작업한 시나리오 「이중간첩」이 영화화되며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 두 번째 직장인 출판사에서 만화 기획자로 일하며 쓴 「실험인간지대」가 제1회 부천만화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는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었다. 전업 작가가 된 후 그는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화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이후 김호연은 『연적』(2015), 『고스트라이터즈』(2017), 『파우스터』(2019)와 산문집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2020)를 펴냈고, 영화 <이중간첩>(2003), <태양을 쬐라>(2015)의 시나리오와 <남한산성>(2017)의 기획에 참여했다. 김호연 (2021). 불편한 편의점. 고양: 나무옆의자, 1.

작품은 (작품성과 대중성은 별개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 『불편한 편의점』을 본 일부 독자는 2016년 11월 한국에 번역 출간된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편의점 인간』을 떠올렸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많은 ‘떡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혼밥·혼술족이 등장했으며 편의점 도시락 수준이 개선되면서²⁾ 편의점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편의점이 새로운 소비패턴과 시대 환경 변화의 상징적 문화공간이 된 것이다. 또한 2016년 7월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고 한국에 번역되면서 편의점이 문학의 소재로서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은 일본문학계의 공신력 있는 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편의점에 대한 의식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양국에서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한국에서도 소설가 박영란이 청소년 장편소설 『편의점 가는 기분』을 출간하였다. 그 이전까지 편의점이 소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은 2003년에 나온 김애란의 단편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고⁴⁾ 할 수 있다.

이 세 작품을 살펴보면 첫째, 김애란의 작품은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고객)의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이와 달리 2016년 무라타 사야카와 박영란의 두 작품은 모두 편의점 점원의 관점에서 편의점을 사유하고 있다. 둘째, 두 작품은 김애란의 소설보다 10여년이 지나 발표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적 삶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2016년의 두 작품은 대기업의 동네 상권 침투와 유통구조의 재편, 신자유주의적 노동환경이 지금 여기의 삶에 미친

2) [베스트셀러] 소설 ‘불편한 편의점’ 4주째 1위. (2022. 3. 11). 연합뉴스.

3) 편의점 도시락이 확산되던 시기는 2010년경이다. ‘해자 도시락’이 출현했다. 이 무렵 도시락은 저가였지만 품질은 아직 좋지 않았다. 한국 편의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것은 시그니처 상품과 할인전략이 대표적이다.

4) 김애란 (2003). 나는 편의점에 간다. 문화과 사회. 16(3). 문화과지성사, 1155-1176; 소설가 김애란은 2004년 49회 현대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단편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서 3곳의 편의점을 배경으로 후기자본주의의 일상과 익명적 관계를 고찰했다. 이 소설은 불어로 번역되어 2014년 프랑스의 기자와 비평가가 주는 ‘주목받지 못한 작품상’을 수상했다. 소설 ‘작은 장르’ 된 편의점 문학. (2017. 1. 25). 경향신문.

변화를 편의점을 통해 성찰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다.⁵⁾ 작가 김호연이 무라타 사야키와 김애란, 박영란의 작품을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김호연의 작품은 기존의 작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편의점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누적되면서 이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새롭게 작품을 쓰는 일은 작가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김호연의 작품이 읽히는 지금 시점의 한국은 일반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형 편의점과 전국 체인 대형마트의 동네 상권 침투가 더욱 확산하여 소형 동네 슈퍼는 거의 사라지고 편의점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라타 사야키의 『편의점 인간』은 오피스 변화가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 존폐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박영란의 청소년소설 『편의점 가는 기분』은 김호연의 작품처럼 밤 근무 편의점 알바가 주인공이지만 편의점 점주의 아들이고 아직 청소년이다. 이와 달리 김호연의 작품은 밤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 알바까지 모두 등장하여 편의점의 24시간과 비정규직 알바(모두 성인)의 애환이 사유된다. 이것이 김호연이 자신만의 편의점 작품을 구성한 방식이다. 박영란의 작품에서 편의점 본사와 지점의 관계가 논해진다면⁶⁾ 김호연의 작품은 편의점간 경쟁으로 존폐의 위기에 있는 소형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편의점 사장의 고민까지 포괄하고 있다. 김호연은 지금 여기의 한국 편의점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모든 관계자(편의점 점주, 점원, 손님)를 시야에 넣고 작품을 기획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작품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5) 양아람, 이행선 (2017). 2010년대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점원, 사회, 문화 - 무라타 사야키(村田沙耶香)의 『편의점 인간』과 박영란의 『편의점 가는 기분』. 한국학연구, 63, 195-230 참조

6) 주인공 18세 청소년 '나'의 할아버지는 운영하던 동네 마트를 편의점으로 바꿨는데 마트를 운영할 때와 달리 매출은 더 높지만 본사에 지출하는 돈이 상당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말이 사장이지 중간 노예와 마찬가지로"라고 생각했다. "거대한 흡혈충이 등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가는 기분을 매일 느끼는 게 바로 편의점 장사였다." 박영란 (2016). 편의점 가는 기분. 파주: 창비, 162.

(광고) 청파동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 ALWAYS.

어느 날 서울역에서 살던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야간 알바로 들어오면서 편의점에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서울역 홈리스로 지내면서도 자기의 안위보다는 지갑을 잃어버린 낯선 부인의 안부를 걱정하는 독고 씨. 그런 독고를 향해 우정과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편의점 사장 염 여사.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의 역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고독과 불안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된 우리들에게 눈부신 영감의 씨앗을 심어준다.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던 홈리스 독고 씨의 변신은 어쩌면 덜 놀라운 사실이다. 독고 씨의 진짜 재능은 많은 사람을 너끈히 구할 수 있는 눈물겹도록 따스한 마음이기예. 정여울⁷⁾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70대 여성의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책 광고는 “어느 날 서울역에서 살던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야간 알바로 들어오면서 편의점에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노숙자 출신의 독고 씨가 점원이 되어 편의점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주는 서사의 핵심 인물이다. 주인공 점원이 야간 알바생인 것은 박영란의 작품과 동일하지만, 『불편한 편의점』은 앞에서 언급한 세 작품처럼 특정한 한 명의 주인공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 8가지 에피소드에서 점주, 점원, 고객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각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상당한 비중으로 등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공간적 배경은 숙대 근처 청파동의 한 편의점이다. 『불편한 편의점』(2021)은 작가의 『망원동 브라더스』(2013)에 이은 ‘동네 이야기’ 시즌2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망원동 브라더스』가 망원동 옥탑방을 배경으로 루저 인생 네 남자의 삶의 애환을 유머 있게 다루면서 독자를 위로했다면, 『불편한 편의점』은 오래된 동네 숙대 뒤 청파동 골목에 자리한 소형 영세 편의점을 배경으로 점

7) 김호연, 앞의 책, 272.

원과 고객 등의 삶의 고충을 드러내고 위로하는 작품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3개월이다. 작가는 편의점을 매개로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요컨대 본고는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 한국사회의 일상에서 필수적 인프라가 된 편의점의 물리적 현실과 사회의 편의점 인식을 조명하고, 이러한 편의점에서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주인공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기억과 건강, 인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간이 되는 ‘공감의 회복’ 과정과 그러한 인간회복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구명(究明)하고자 했다. 특히 이 작품에는 “소통”, “소통불능인간”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본고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해야 하면서도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어 가는 현대인’의 주변화 된 삶의 문제와 인간회복을 소통, 공감과 결부지어 성찰하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개인화된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소통부재의 공간 ‘편의점’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공감 회복을 모색하는 문학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II. ‘불편한 편의점’의 사회

『불편한 편의점』의 공간적 배경은 서울역, 숙명여대 너머 청파동 골목 모퉁이의 편의점이다. 시간적 배경은 2019년 11월 중후반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독고 씨의 3개월 아르바이트 기간이다. 정확히는 2월 말 대구 코로나 전염병 확산 시기까지이다. 이 작품은 당대의 편의점에 대한 대중문화의 표상 및 사회 전반적 인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작가는 자신만의 소설을 위해 어떠한 물리적 조건의 편의점과 등장인물을 구축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밝히고 있는가.

요식업으로 일가를 이룬 부모님 아래서 자란 시현이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다. 가게도 결국 사람 장사다. 손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가게와 직원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사장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파동 이 편의점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주변에 다른 편의점이 두 개나 생겼고, 노령 인구가 많은 이곳은 편의점보다는 동네 마트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나마 숙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큰길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리한지라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그저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좀 드나들 뿐이다.⁸⁾

작가가 기획한 편의점은 청파동 숙명여대로 향하는 큰길이 아니라 숙대 지나서 골목 사이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ALWAYS 편의점이다. 숙대 학생보다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 골목을 경유하는 곳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손님이다. 이곳은 서민동네이고 노령인구가 많아 주민들은 주로 동네마트를 선호했다. 또한 10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규모가 상당히 있는 크기의 GS와 다른 편의점이 치열한 이벤트 세일 경쟁을 하고 있다. 1인 점원의 규모가 작고 위치가 불리한 ALWAYS 편의점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점원의 월급을 간신히 지불할 정도로만 겨우 유지되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소설에 ‘가맹점 규모와 편의점 경쟁’의 문제가 문화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제기된 것은, 가맹점 수 문제 때문이다. 점포 포화상태에서 ‘근접 출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다. 한국의 편의점 점포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편의점 점포수는 4만 2,877개로 2019년 40,672개 대비 5.4% 늘어났다. 편의점당 평균면적은 22.2평으로 2019년 22.1평과 별반 차이가 없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총매출액(억원)은 244,795로 2019년 248,283 대비 1.4% 감소했다.⁹⁾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서울 내 편의점 출점 시 100m 거리 내

8) 위의 책, 53-54.

9) 2019~2020년 편의점산업현황.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출처: https://cvs.or.kr/bbs/board.php?bo_table=board1&wr_id=10

신규 출점이 불가하며 이외 대부분 지자체에서 50m 출점 제약이 적용)이 2018년 11월 30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고 2021년 12월 다시 2024년까지 3년 연장되었지만,¹⁰⁾ 편의점은 코로나 시대에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접어들면서 전국 편의점 수는 5만개를 넘어섰다. 한국 인구수가 5000만 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1000명당 1개 수준이다. 그야말로 '편의점 왕국'이다.¹¹⁾

소설 속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골목에 위치했다는 것은 대기업의 자본이 골목상권도 흡수했다는 것을 함의한다. 면대면을 중시했던 골목상권에 자본과 조직시스템이 개입하면서 그 공간이 프랜차이즈와, 교감 없는 표정과 감정으로 일관하는 점원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가맹점의 규모와 위치는 소설에서 점주, 점원 등 등장인물의 성격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작가가 오래된 서민동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위치의 소규모 편의점을 설정한 이유는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돈을 밝히지 않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사장을 내세우기 위한 서사전략이다. 작품 속 ALWAYS 편의점은 '상품종류가 부실하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편의점이어서 상품을 다양하게 많이 들여놓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 손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¹²⁾ 이와 같이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이곳을 소설의 제목처럼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부른다. 순익이 거의 없는 '불편한 편의점'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작가는 직원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장을 점주로 설정했다.

사장 염영숙 여사는 71세(2020년 기준)로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하다가 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편의점은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돈으로 연

10) 현재 자유통약에 참여하고 있는 가맹본부(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24, 이마트24)는 6개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하는 '자유통약, 3년 더 연장됐다. (2021. 12. 29). 머니투데이.

11) 편의점 업계 중에서도 CU, GS25, 세븐일레븐(2022년 1월 미니스톱 인수)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제로점 게임' 편의점 가맹점 쟁탈전 뜨겁다. (2022. 2. 17). 머니S.

12) 김호연, 앞의 책, 146.

것이다. 돈벌이는 안 되지만 점원의 생계를 위해 폐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사장의 입장이다. 염 여사는 기독교를 모태신앙으로 하고 있고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배려하며 돈 욕심이 없는 인물이다. 이로써 따뜻한 성격의 사장이 아르바이트 점원을 채용하는 한편 ‘편의점을 폐업하고 사업자금으로 내놓으라는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불편한 편의점』 서사의 기본틀이 구축된다. 장사 안 되는 골목 소형 편의점, 배려심 있고 돈 욕심 없는 사장, 이것이 역설적으로 ‘고감 없는 표정과 감정으로 일관하는 점원의 편의점’이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넘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기본 전제조건이 된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오전 타임은 오선숙 여사(50대 후반~60대 초반 추정, 사장님의 교회동생),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후타임 시현(27세, 여, 공무원 준비생), 저녁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타임 성필 씨(50대 중반 동네 아저씨, 두 아이의 가장, 실직자 - 직업 찾는 중)이다. 한국의 편의점 업계는 되도록 젊은 사람을 선호하지만 사장 염영숙 여사가 채용한 사람은 청소년이나 외국인, 대학생 등이 아니다. 박영란의 『편의점 가는 기분』의 편의점 점원은 주인공 청소년이었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 점원은 청(소)년의 전유물이 아니다. 『편의점 인간』의 작가 무라타 시아카처럼 30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2명이 근무하는 편의점이 다수 있는 일본은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초고령화로 진입한 일본의 편의점에서는 시니어 채용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¹³⁾ 적극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편의점 고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이 많

13) 일본에서 발행하는 『コンビニ』는 편의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월간 잡지이다. 2017년 3월 호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고령자와 일손부족이라는 편의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이 시니어 채용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의욕이 있는 고령자와 적극적 이를 채용하기 위한 접점을 연결하여 국가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지원에는 광고 참가자 접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ママ・シニア・外国人の採用と教育、定着法(月刊コンビニ) (2017). 東京: 商業会, 20-21.

은 상황이고 점주가 영업을 위해 중장년층의 고용을 꺼리는 심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세 직원은 '불편한 편익점'이 큰길가에서 젊은 대학생을 상대하는 편익점이 아닌데다 직원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채용되었다. 소설 속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야간티임은 월 200만원을 약간 넘는 돈을 수령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근무했던 성필 씨가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일을 구하게 되면서 갑자기 새로운 야간근무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자리를 사장 옆 여사의 지갑을 찾아준 서울역 노숙자 독고 씨가 맡게 된다. 또한 작품 마지막에 독고 씨가 그만두고 60대 초반 홍신소 곽 씨(황혼이혼, 독거 생활, 이제야 노후자금 마련 중)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작가 김호연의 『불편한 편익점』은 박영란과 달리 청소년의 세계가 아니라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시현(27세)만 제외하고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장년의 어른의 세계를 다룬다.

사장님과 면담을 했다. 아주 사적인 퇴사 사유를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궁금증이 풀린 것만으로도 나를 이해해주었다. 편익점이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손님이나 점원이나 예외 없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란 걸,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을 하고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아예 차를 고쳤다. 고쳤으면 떠나야지. 다시 길을 가야지. 그녀가 그렇게 내게 말하는 듯 했다.¹⁴⁾

그래서 이 작품의 편익점 점원은 공무원 공부를 진짜 하는 건지도 의심받는 시현, 남편은 가출하고 게임에 빠진 30세 아들(무직)을 둔 오선숙 여사, 50대 초반 실직하여 1년 반 동안 편익점 야간근무를 하다가 회사 운전기사 일을 구해 나간 성필 씨, 서울역 노숙자 출신의 독고 씨, 60대 초반의 원룸 독거노인 곽 씨이다. 이들의 존재는 따뜻한 심성의 사장님과 '편익점 분위기'를 환기

14) 김호연, 앞의 책, 243.

하는 서사효과를 낳는 동시에 편의점 점원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했다. 편의점을 활용한 문학의 상상력은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속의 인간을 반영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구조하의 사회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장님은 분명 배려심 있는 분이지만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야간근무는 밤을 새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500원이 추가될 뿐이다. 파트타임 임금제로는 집안을 책임지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고 야간근무자는 건강이 많이 상한다. 성필 씨가 운전기사 일을 구해서 편의점을 그만둔 것이 그 실례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에서 “편의점이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손님이나 점원이나 예외 없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란 걸,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을 하고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제대로 충전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만큼 김호연의 편의점 점원은 각자 형편이 어렵다.

한국 편의점의 근무환경과 편의점에 채용된 점원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근무자는 직원이나 점원이라기보다는 알바생으로 치부된다. 흔히 사회에서 편의점 점원은 학력이나 기술이 없는 무능력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공무원 시험에 자신이 없는 시험,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오션속 여자, 성필 씨, 광 씨 등은 사회의 하위계층에 속한다. 사회적 지위와 금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 점원은 일부 고객의 멸시와 폄하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의 정서와 편견이 편의점 점원에게 작동했다.¹⁵⁾

담배를 받고 돈을 던진 뒤 높은 잔돈을 챙겨 밖으로 나가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웠다. 금연이라고 붙여뒀지만 아랑곳없이 피우고 풍초도 아무 데나 버리고 간다. 자기는 마음껏 진상질을 떨면서 남의 실수 같지 않은 실

15) 참고로 무라타 사야키는 『편의점 인간』에서 편의점 점원으로 일하는 프리터로서의 삶이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임을 보여주는 결말을 마련했다. 이는 결말에서 여주인공이 사회와 가족, 친지가 편의점 점원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한 결과다.

수는 따져대는 놈은 정말이지 제이에스 오브 제이에스다.

시현은 제이에스가 나타나는 여덟 시에서 아홉 시 사이가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다. 출입문에 달린 종의 딸랑 소리와 함께 그 눈 튀어나온 금붕어 같은 얼굴이 들어오면 계산을 마치고 갈 때까지 내내 심장이 덜덜했다. 오 늘은 또 뭘 진상을 부리려나……¹⁶⁾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사회적 멸시가 편의점 점원의 근무환경과 결부되어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되었다. 첫 번째는 편의점 점원을 함부로 대하는 “진상”이다. 작품에서는 진상을 약자를 따서 “제이에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례로 40대 한 남성 진상은 반말을 하고 함부로 돈을 던진다. 그는 점원의 사소한 실수를 따지고 시비를 걸고 편의점에서 적어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금연이라고 써놔도 그는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궂초를 버리고 간다. 이외에도 다양한 진상 행동이 많다. 그가 주로 오는 시간대가 되면 점원의 심장이 떨린다. 편의점 점원도 서비스직이다. 작가는 무시와 멸시를 내면화한 진상에 의한 점원의 감정노동의 고충을 포착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고객의 절도와 폭력이다. 흔히 편의점 폭력하면 심야시간대가 많이 언급된다. 야간타임 근무자는 취객난동이나 강도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례로 2016년 12월 경북 경산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흥기에 질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¹⁷⁾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모든 위협을 아르바이트에게 떠넘기며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비난이 크게 일자, 계산대 근처에 범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근무자의 도피로를 마련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며, 계산대 결제단말기에 긴급신고 기능도 추가될 거라고 했다.¹⁸⁾ 이러한 노력의 근저에는 본사가 아르바이트를 노동자로 여기는 인식전환이 근본적으로 요구됐다. 최근인 2022년 2월 19일 밤 12시 34분에도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25세

16) 김호연, 앞의 책, 55-56.

17) 편의점 알바 죽음... 본사가 사과 보상하라. (2017. 4. 13). News1.

18) 편의점 더 안전해진다...긴급 신고벨·범죄예방디자인. (2017. 4. 26). News1.

아르바이트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¹⁹⁾

“야! 처발러! CCTV 녹화기 챙기면 돼. 돈도 챙기고!”

염 여사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꼼짝할 수 없었다. 사내놈들이 흥분한 채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포스기에 달려들었다. 겁에 질린 염 여사는 어찌할 바 모른 채 손만 떨고 있었다. …(중략)… 한동안 악다구니와 구타가 계속되던 중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중략)… “아이 씨발 비켜! 비키라고!! 이 똥 같은 새끼야!”

놈들의 발악은 제복 사내 둘이 나타나자 마침내 멈췄다. 그제야 염 여사는 가쁜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느릿느릿 일어나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독고 씨의 커다랗고 듬직한 등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고개를 돌린 독고 씨가 그녀를 향해 쩡그린 미소를 지어보였다. 처음으로 보는 웃는 그의 얼굴은 눈가에서부터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독고 씨는 아랑곳없이 피 묻은 옷음을 지어 보였다.²⁰⁾

이와 같이 야간시간대 편의점 폭력에 사회적 시선이 쏠리는 것과 달리 작가 김호연은 오전타임과 심야타임의 절도와 폭력을 모두 서사화했다. 작품 초반 성필 씨가 이직을 하게 되어 다음 근무자를 구하기 전 사장님이 홀로 심야 근무 할 때 20대 초반 술 취한 남녀 무리와 시비가 일어나 녀석들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챙기려고 달려들 때 독고 씨가 나타나 경찰을 부르고 상황을 정리했다. 또한 어느 날은 오전 타임에 15세 무렵의 불량청소년 무리가 삼각김밥 등을 훔쳤다가 오선숙 여사에게 걸리자 거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때 아직 퇴근하지 않은 독고 씨가 밖에서 보고 들어와 제압했다. 이러한 설정은 편의점에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로 절도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혼자 편의점을 맡고 있는 점원은 감정노동의 단계를 넘어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었고 안전까지 위협받았다.

19) 광양 편의점서 40대가 흥기 휘둘러 점원 1명 숨지고 1명 부상. (2022. 2. 19). KBS NEWS.

20) 김호연, 앞의 책, 46-47.

이처럼 편의점 점원은 사회적 편견과 멸시 하에서 고객에게 함부로 취급 받았다. 게다가 편의점이 확산하고 지역의 빈부를 떠나 존재하는 '생활형 상점'이 되면서 절도의 대상이 되었다. 드라마 <시그널>이 보여주듯, 편의점은 고립되고 소외되어 인간관계가 부족한 사람도 생존을 위해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었다. 빈부격차가 심화하면서 생계형 범죄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옆 여사와 오선숙 여사처럼 1명의 여성이 지키는 편의점은 특히 절도에 위험할 수 있었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편의점에 일하는 '점원'은 사회적 무시의 대상이지만, 편의점 '사장'은 다수 일반인에게 부러운 자영업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하의 편의점은 그 점포수가 늘어가는 만큼이나 지금 시대의 경제적 활동의 전형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시장의 활성화와 이윤극대화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노동형태에 고용된 다수의 노동자는 지속적인 노동 불안정과 중간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임금저하를 겪게 된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편의점은 청(소)년에게는 학비나 생계를 위한 일터 이면서도 너무나 낮은 급여를 받는 착취의 공간이었다. 이와 달리 중장년층은 편의점 창업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꿈꾼다. 언뜻 보면 편의점은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 퇴직자가 편의점 창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불편한 편의점』에서도 기술과 장사 경험이 전혀 없는 역사교사 출신의 염영숙 여사가 자금력만으로 손쉽게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창업했다.²²⁾ 이 창업자와 점원의 간극이 당대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21) 장귀연 (2011).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전략. 마르크스주의연구. 8(4), 303.

22)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 경쟁에서 밀려난 소형 편의점을 다들 뿐 '편의점 본사와 지점의 관계'는 사유하지 않는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브랜드와 상품을 사용하면서 점포를 운영할 권리를 받는다. 이때 가맹점주는 본사의 통일화·표준화된 영업 방식과 품질 기준에 따라야 한다. '경영'이라고 부르는 일의 핵심을 본사에 넘기는 것이다. 그 대가로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금을 낸다. 본사는 경영의 핵심 업무를 대리하는 대신, 매장을 확장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가맹점주에게 넘긴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계약서에 사업자

상징한다.

이 때문에 편의점을 바라보는 소비자도 혼동을 하게 된다. 편의점 점원은 멸시의 대상인데 편의점 점주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고객은 편의점 점원이 알바생인지 점주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점원은 편의점 사장뿐만 아니라 사장의 가족도 하기 때문에 알바생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 작가는 이러한 심리현상을 잘 포착하여 『불편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심야알바생인 독고 씨를 점주로 착각하는 사례를 서사화했다. 어느 날 심야근무자가 성필 씨에서 독고 씨로 바뀌자 경만(45세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노숙자 출신의 독고 씨를 편의점 사장으로 오해했다. 40대 중반이 되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중소기업 영업직인 자신의 신세와 견주며 그는 독고 씨를 많이 부러워한다.

정리하면 작가는 『불편한 편의점』의 공간적 배경을 도시의 변화가가 아닌 서민동네의 외진 골목의 소형 편의점으로 설정했다. 간혹 점주로 오인 받는 이곳의 편의점 점원은 사회적 빈곤계층으로서 감정노동과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각자 나름의 삶의 고충을 껴안고 있다. 작가는 이곳에 노숙자 출신 독고 씨를 새롭게 배치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위로와 감동의 서사를 전개했다. 그런 점에서 『불편한 편의점』은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익명성의 소비 공간이자 소통부재의 공간인 편의점에 익숙한 도시인에게 ‘이웃과 소통하는 소비 공간의 판타지’(과거, 정감 있는 옛 동네 슈퍼)의 문화가 지금 여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에게 환기하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재발견했다. 또한 편의점 점원에 대한 사회적 멸시, 진상 손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편의점 점주 등의 이야기는 점원과 고객의 간극 그리고 점원과 고객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과 소통의 단절의 요인을 상기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조건의 편의점에서 독고 씨의 인간회복 문제를 살펴보자.

고 되어 있지만 편의점 점주는 권리가 거의 없다. 점주는 사실상 노동자와 다름없다.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은폐된 고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혜원 (2021).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파주: 서해문집, 28-30.

III. 고립의 시대 소통불능인간의 관계 회복, 공감하는 인간

『불편한 편의점』이 노숙자 출신 독고 씨의 인간 회복의 서사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물의 소통과 관계를 통한 심리적 치유와 공감 능력 회복이 근저에 있다. 그런데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편의점은 ‘교감 없는 표정과 감정으로 일관하는 점원’이 근무하는 소통 단절의 공간이다. 김애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가 이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었다. 주인공 20대 초반의 여대생은 대학이 주택단지에 사는데 인근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엘지25시가 폐업하고 생겨난 큐마트가 있다. 그녀가 편의점을 가는 기준은 “내게 중요한 것은 그가 수다쟁이인가 아닌가뿐이다.”²³⁾이다. 여기서 그는 편의점 직원이다. 그녀는 세븐일레븐 사장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 신상 등을 문자 받을 끊어 버린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패밀리마트로 가는데 어느 날 콘돔 살 때 사장이 주민증을 요구해서 민망해지는 경험을 겪고 그곳도 가지 않는다. 그 이후는 큐마트에 가는데 젊은 청년 알바생은 자신에게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큐마트는 ‘어서 오세요’와 ‘감사합니다’의 세계였다.”²⁴⁾ 그래서 그녀는 큐마트만 가지만 곧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녀가 계속 그곳을 이용해도 점원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친밀감이 전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한다.

이처럼 김애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손님이 점원의 ‘말 걸기’를 거부하고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어 고객은 오로지 바코드에 찍히는 고객 물건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세계다. 이와 달리 김호연은 정반대로 점원이 ‘말 걸기’ (소통)를 시도하는 ‘불편한 편의점’의 세계를 창안했다. 소설 제목 『불편한 편의점』은 상품 품목이 적어서 고객이 불편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점원이 고객의 심리적 불편함을 알면서도 ‘말 걸기’를 시도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김애란의 작품은 주인공이 ‘말 걸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전혀 인간관계가 형성

23) 김애란 (2019). 달려라, 아버. 파주: 창비, 223.

24) 위의 책, 228.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김호연은 조심스런 ‘말 걸기’에서 시작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세계를 만들었다.

현대 도시사회에서 개인화된 개인은 주어진 환경과 관계 속에서 심정적으로 지지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인은 소속감을 추구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자유를 위해 자신만의 시공간을 마련하고 나름의 감정 방어, 감정 안정을 지향하는데, 타인의 ‘말 걸기’는 감정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불편’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감정 방어의 신체적 반응이다.²⁵⁾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 ‘불편’을 야기하는 접촉, 만남, 소통이 없다면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은 자유롭게 살고자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한편 고독사가 세대불문 하고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타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작가가 주목한 ‘편의점에서의 접촉’은 최소한의 관계 유형의 하나이다. 그리고 ‘말 걸기’는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소통의 제스처이다. 작가는 이러한 당대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점을 매개로 고립된 개인 간 소통과 도움의 문제의식을 화두로 ‘소통불능인간’이 타인에게 ‘공감하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방식을 고민한 소설을 기획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문화사적 맥락과 『불편한 편의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장은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독고 씨가 기억 상실 후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 맺으며 도움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을 고찰하여 ‘공감하는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인간회복 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불편한 편의점』은 사람 간의 소통과 연대가 무너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공존과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 능력’의 회복과 ‘공감’의 사회적 가치를 독자에게 환기하는 문학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불편한 편의점』은 겉으로 보면 편의점 점원 독고 씨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소설이다. 하지만 그가 일방적으로 타인을 향해 도움을 주는

25) 최은주 (2017). *감정 있습니까?*. 서울: 은행나무, 61-86 참조

서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역시 편의점을 매개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받는 서사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독고 씨(40-50대 추정)는 4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성 치매를 겪으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자다. 또한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할 때 독고 씨는 다른 노숙자 무리와 어울리지 않아서 말더듬이가 되어 버린 상태다. 그는 머리도 크고 덩치가 커서 곰 같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인물이 서울역에서 우연히 편의점 사장님의 지갑을 찾아 돌려주고 편의점의 불량한 무리를 제압하면서 사장님의 신뢰를 얻고 편의점 야간알바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서 기억상실자 독고 씨는 타인에게 '말 걸기' 시작하고 작품 마지막에 건강과 기억,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쌍방향적 소통과 영향에 주목하여 이 장에서 『불편한 편의점』을 '독고 씨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사'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독고 씨의 서사'로 대별하여 분석했다.²⁶⁾

먼저 전자를 살펴보면, 기억상실자 독고 씨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일부 회복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배우게 되는 쌍방향적 영향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선 독고 씨와 편의점의 인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독고 씨는, 편의점 안에서는 다른 시간대 점원과 교대 하는 시점에 야외테이블을 아침저녁으로 청소해주면서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편의점 밖에서는 야외테이블에 앉은 손님 과 '말 걸기'를 하며 접촉하게 된다. 그래서 독고 씨는 '야외테이블을 매개'²⁷⁾

26) 작가는 이 두 서사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하지 않고 추리적 요소를 가미했다. 『불편한 편의점』은 8개의 에피소드로 서사가 전개되는 소설인데 본명과 나이, 직업, 가족 등 모든 기억을 상실한 독고 씨가 자신을 찾아가는 회복의 서사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여 독자는 작품의 마지막에 가서야 독고 씨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획으로 소설은 반전의 서사 효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작가는 8개의 에피소드에서 앞 7개에서는 독고 씨의 내면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 8번째 에피소드에서 내면을 드러내는 서사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작가는 독고 씨의 삶의 회복의 서사만을 구축하지 않고 그와 관계를 맺는 소설의 7명의 삶의 회복 문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룬다. 이로 인해 독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애환, 삶의 문제의 해결과정을 목도하여 소통과 도움의 중요성, 삶의 관계와 태도, 의미를 되새겨보는 독서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27) 작가는 등장인물간 편의점의 인간관계 '형상'을 조성하기 위해 조그만 편의점 앞에 '야외테

로 오전 근무자 오선숙 여사와 오후 근무자 시현과 가까워지고 야간손님 경만(45세, 중소기업 영업직, 월급 동결 지속, 가족으로부터 소외감)과 정인경(40세, 연극대본 작가)과 관계가 형성된다.²⁸⁾ 그리고 이 외에 ‘불편한 편의점’을 팔아 사업자금으로 쓰려는 사장님 아들 민식(40세, 무직)과 독고의 정체를 밝혀 쫓아내려는 민식의 심부름을 받은 흥신소 광 씨(60대 초반)가 있다. 광 씨도 나중에는 독고 씨의 따스한 ‘말 걸기’에 마음을 연다. 사장님 아들 민식만 제외하고, 독고 씨는 다른 5명의 상황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독고 씨의 ‘말 걸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오후타임 시현(28세)은 공부에 자신이 없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오후 2시부터 밤 10까지이기 때문에 오전에 학원 강의 시간 외에 사실상 공부시간이 없다. 사장님조차 공무원 공부를 진짜 하는지 의심할 정도다. 이러한 시현에게 독고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말한다. 이 ‘말 걸기’ 이후 다른 편의점 점주가 시현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바가 아니라 편의점 지점을 전담하는 정식

이블’을 설정하고 서사전개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야외테이블로 인해 따뜻한 염영숙 여사의 불편한 편의점은 한층 더 따뜻한 공간이 되며 야외테이블은 주된 ‘말 걸기’와 대화의 장이 된다. 한국에서 편의점은 기존 동네슈퍼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포장마차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집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이들도 있지만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야외테이블에 앉아 마시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매장 바깥에 시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며 생기는 다툼,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심야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지 않은 편의점도 많다. 『불편한 편의점』에서 사장님은 야외테이블 “관리가 힘들지만 동네의 쉼터이자 작은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고 없애지 않는다. 독고 씨는 이 더러워진 야외테이블과 술병, 떨어진 담배꽂이를 청소하면서 사람들에게 경우 바른 사람으로 인식되고 흥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야외테이블은 독고 씨가 타인에 말 걸기를 하는 주된 매개공간이 된다. 이러한 점이 이 작품에서 인물의 ‘말 걸기’ 소통방식의 환경 조건이다.

- 28) 청파동 동네 주민(두 아이의 가장)으로 실직 후 1년 반 동안 ‘불편한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한 성필 씨(50대 중반)는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일을 구하게 되면서 그만 둔다. 독고 씨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므로 성필 씨는 작품 초반에 잠시 언급될 뿐 독고와는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직원(점장)을 제안하면서 시현은 이직을 하게 된다. 독고 씨의 조언이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두 번째, 오전타임 오선숙 여사의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하다가 가출해 버리고 아들(30세)은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결혼생활 30년이 되었지만 오 여사에게 남편과 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소통불능인간”이다. 가족에게 고통을 받은 오 여사는 따뜻한 사장님과 다르게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게 굳은 신념이었다. 그녀에게 노숙자 출신 독고 씨는 경계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였다. 하지만 그가 야외테이블을 청소하고, 편의점 진열을 잘하며, 편의점 절도범을 제압하고, 동네 할머니 손님에게까지 호감을 사게 되자 그녀의 인식은 서서히 바뀌게 된다. 하루는 진열에 열중하고 있는 독고를 보며 그녀는 “건실한 사회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 노숙자나 다름없는 사내보다 우리 아들이 못하다니…….”²⁹⁾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만다. “게임중독인 아들은 사회에서 이탈한 패배자이고 앞날이 캄캄한 인간이다. 노숙자나 부랑자가 될지도 모른다.”³⁰⁾ 오 여사는 독고 씨에게 가족사와 아들 문제를 쏟아내게 된다. 얘기를 들은 독고 씨는 아들이 소통불능인간이라고 하지만 “선숙 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 거 같아요.”³¹⁾ 하며 게임할 때 삼각김밥이 좋다며 삼각김밥과 편지를 전해보라고 조언을 한다. 이를 계기로 오 여사는 작품 말미에 전혀 대화가 없던 아들과 카카오톡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세 번째, 야간손님은 경만(45세, 중소 제약회사 영업직, 월급 동결 지속,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이 있는데, 경만은 퇴근길이면 ‘불편한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에서 컵라면과 술을 먹으며 11시 넘어서야 귀가한다. “집에서는 은파(은근 따돌림), 회사에서는 대파(대놓고 따돌림), 세상은 왕파……. 이것이 경만의 피가 알코올을 부르게 만드는 이유였다.”³²⁾ 경만은 “회사에서의 굴욕과

29) 김호연, 앞의 책, 104.

30) 위의 책, 104-105.

31) 위의 책, 106.

집에서의 소외감³³⁾을 느끼며 절망한다. 그는 이리다가 퇴사, 가출하면 노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만을 지켜보던 독고 씨는 열풍기를 가져와 틀어주고 무료 옥수수수염차를 권하며 말을 건다. 독고 씨는 술을 끊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옥수수수염차로 알코올 갈증을 해소했다. 경만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독고를 사장으로 오해해 불신하고 피해 다닌다. 그러다가 하루는 경만의 가족사진을 우연히 보고 독고 씨는 경만의 두 딸이 고생하는 아버지가 번 돈을 아끼기 위해 원 플러스 원 상품만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오던 경만은 감동해 눈물을 흘리고 술을 끊고 일찍 귀가하게 된다. 가족들도 술을 끊은 경만을 응원하며 가족 관계가 다시 서서히 회복하게 된다. 이후 기억을 회복한 독고 씨는 경만의 의료기기 영업에도 도움을 준다.

네 번째, 또 다른 야간손님 정인경(40세, 연극대본 작가, 전직 대학로 연극 배우)은 지난 가을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에서 무료로 생활하며 집필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교수의 도움으로 방학기간 비어있는 서울의 교수 딸집을 이용하게 된다. 그 딸집은 ‘불편한 편의점’의 맞은편 빌라 3층이다. 이곳을 집필실로 삼은 정인경은 우연히 창밖으로 경만에게 다가가는 독고 씨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고 유의 깊게 관찰하게 된다. 정식 작가 교육을 받지 않고 우연히 상을 받아 등단한 연극작가 인경은 집필에 자신이 없었다. 이번에도 작품을 쓰지 못하면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절망적 상황에서 인경은 독고가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흥미를 갖고 취재를 하게 된다. 그녀는 매번 심야에 ‘불편한 편의점’에 찾아가 산해진미도시락을 먹으며 독고 씨와 대화를 나누고 그를 모델로 한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2년 만에 극단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편의점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 받아 그녀는 계약을 하고 원고를 완성해 연극 무대에 상연하게 되며 청파동을 떠나게 된다.

32) 위의 책, 122-123.

33) 위의 책, 122.

다섯 번째 흥신소 직원 곽 씨가 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사장님 아들만 독고 씨에게 분노했다. 그는 편의점을 하루라도 빨리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독고 덕에 매출이 더 올라서 어머니가 가게를 접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는 상황을 참지 못했다. 그는 흥신소 직원 곽 씨에게 독고의 정체를 조사해달라고 한다. 곽 씨(60대 초반)는 뇌물을 받아 해고된 전직 경찰출신으로 황혼이혼을 하고 자식과도 떨어져 살고 있다. 그는 혼자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돈도 없어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 노후자금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흥신소는 전혀 돈벌이가 안 된다. 가난과 외로움에 사무친 곽 씨는 '불편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갑자기 열풍기를 틀어주고 무료 핫바를 권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독고 씨에게 따스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만다. 독고 씨는 자신이 알바를 그만두기 때문에 곽 씨에게 야간알바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곽 씨는 독고를 대신에 200만원 초반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독고 씨가 도움을 주는 행위는 공감의 실천이다. 그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준)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거나 '홀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당수는 곧 노숙자로 전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직업과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은 고립되어 대화를 제대로 나눌 사람도 없다.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은 도움을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오선숙 여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을 "소통불능인간"이라고 지칭했듯이 고립되고 소외된 이들도 가족 및 타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잘 모르는 '소통 불능적 인간'이다. 가령 흥신소 곽 씨는 따로 사는 "가족들에게 평생 모질게 굴었네. 너무 후회가 돼. 이제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독고 씨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스스로 말을 걸어주면서 소통을 하고 각자의 삶의 문제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며 소통하는 법을 알려 준다. 오 여사에게 아들에게 줄 삼각김밥과 편지를 제안했듯이, 독고 씨는 흥신소 곽 씨에게 "편의점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듯이 가족한테도 하면 잘 될 거"라고 조언했다.³⁴⁾ 이처럼 『불편한 편의점』은 일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과 소통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운 가족에게

심한 상처를 주며 고립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포착하여 타인의 도움과 소통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작품은 그 도움의 주체를 사회에서 가장 배척의 대상인 알콜중독자이자 노숙자 출신의 기억상실자 독고 씨로 상정하여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독자에게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 지지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고 씨가 도움을 준 과정은 자신의 기억이 서서히 회복하고 각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방증이기도 했다. 『불편한 편의점』이 독고 씨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사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독고 씨의 서사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두 서사는 모두 기억상실자 독고 씨의 기억 회복에 일조하는 기능을 한다. 독고 씨가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억만 회복되는 게 아니다.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배우며 인간성을 회복하는 쌍방향적 영향관계를 맺는다. 앞에서 살펴본 독고 씨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감 능력의 회복과 공감의 실천의 내면적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동인’의 분석이다. 극도의 이기적 인간이 공감하는 윤리적 인간으로 변모하는 동인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독고 씨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억을 조금씩 회복하고 자신의 인간성과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³⁴⁾

독고 씨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돕는 인물과 독고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구명(究明)해보면, 첫 번째 독고 씨가 편의점에서 일하기 전 그가 만난 사람이 있다. 독고 씨가 편의점에서 타인의 고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인간이 되도록 사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 그 사람은 서울역 노숙자선배 진짜 ‘독고’노인이다. 주인공 독고 씨의 본명은 작품에 나오지 않는다. 주인공을 지칭하는 독고는 원래는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사는 법을 알려

34) 위의 책, 251-252.

35) 유의할 점은 작가는 작품의 등장인물 외에도 ‘부수적 인물과 사건이 독고 씨의 기억회복을 돕는 서사’를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배치했다. 이러한 서사전략으로 독자는 추리소설을 읽듯 작품 마지막에 새로운 부수적 인물, 사건과 함께 주인공이 기억을 회복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독서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준 노숙자 선배 독고 씨의 이름이었다. 주인공이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선배는 밥을 얻어먹고 잘 수 있는 곳을 알려줬다. 또한 선배는 1년 동안 서울역 TV를 함께 보며 기억을 잃은 주인공에게 다양한 세상사와 사람들의 고통을 알려준다. 이것이 기억상실 상태에서 독고 씨가 타인의 인생과 마음을 새롭게 배우게 된 계기이다. 이 선배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자 주인공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독고란 이름을 사용했다. 어차피 자신의 본명도 기억나지 않아 몰랐다. 주인공은 이 선배와 TV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갖가지 모습과 고통의 “실감”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주인공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 사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주인공이 작품 초반 지갑을 편의점 사장님에게 돌려주고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도 돕는 인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고 씨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말 걸기’를 하게 된 근거에는 노숙자 선배로부터 배운 공감 능력이 있었다. 편의점 생활은 서울역 TV에서 배운 바를 행하는 공감 실천의 장인 셈이다. 4년 간 노숙자 생활을 한 것을 감안하면 독고 씨는 편의점에서 3개월 동안 타인과 함께 하기 전 오랜 기간 서울역 TV를 통해 세상사를 새로 배웠다는 것이 확인된다.

두 번째 독고 씨는 편의점에서 청파동 동네 백발노인들을 통해 인간 존중과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배우게 되면서 공감 능력을 증진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독고를 노숙자라고 멸시하지만 동네 노인 분들은 독고 씨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이들로 인해 독고 씨는 몸의 온기가 도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다. 독고 씨는 동네 어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온정의 차이를 새삼 자각한다. 차가운 현실에서도 그는 타인을 선입견 없이 대하고 도우며 인간다운 존중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독고 씨는 따뜻한 동네 어른의 공감 능력과 배려를 통해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법을 배우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주는 인간으로 변해간 것이다. 이는 일종의 행동과 감정의 모방 및 체화이다.

세 번째, 독고 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회피해온 기억을 조금씩 되찾고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과거 자신의 인생과 삶을 ‘가족의 입장’에서 성찰하는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기억회복 일차적 매개체가 편의점에 온 손님(어머니와 딸)이다. 상품을 고르는 다정한 모녀를 보며 독고 씨는 문득 자신에게도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가족을 떠올리려면 무언가 고통이 다기와 독고 씨는 가족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 단계는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회복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녀는 작품에서 독고 씨의 정신적 회복의 징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억을 잃기 전 어떤 인물이었는지 암시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가족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은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내라는 보호막으로 인해 딸과 내가 소통 불가에 빠진 줄 착각했지만 지금은 사실을 알 것 같다. 애당초 보호막을 치게 만든 것도 나였고 나중에 아내가 애써 만든 기회를 발로 찬 것도 나였다. 나는 딸을 제멋대로인 아이 취급했고 딸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 가족의 해체, 내 인생의 불행, 아내와 딸을 잃어야 했던 것은 내 무심함과 오만함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 고통 속에서 기억을 잃고 겨우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연민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소통할 사람을 찾기엔 이미 늦은 듯했다. 그러나 힘을 내야 했다.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내가 빠졌던 구렁텅이에 발이 빠지려는 선숙 씨를 도와야 했다. 그 고통을 실감했고 그 슬픔에 잠겨봤기에 무어라도 해야 했다.³⁶⁾

기억회복 이차적 매개체는 ‘오선숙 여사, 영업사원 경만, 사장님 아들, 흥신소 광 씨’의 가족 갈등이다. 이들의 가족사를 듣고 조언을 하면서 독고 씨는

36) 김호연, 앞의 책, 238-239.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가족사를 떠올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서서히 성찰하기 시작한다. 가령, “나는 딸을 제멋대로인 아이 취급했고 딸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 가족의 해체, 내 인생의 불행, 아내와 딸을 잃어야 했던 것은 내 무심함과 오만함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 고통 속에서 기억을 잃고 겨우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연민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기억 상실 이전, 독고 씨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었고 ‘역지사지와 연민,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는 또 한 명의 소통불능인간으로서 가족과도 단절되었다. 서서히 자신의 과거를 자각하고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실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가족의 입장’에서 과거의 삶과 가족 관계를 재성찰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기억회복 삼차적 매개체는 작품 마지막에 배치된 코로나19 전염병 창궐 및 방역용품이다. 노숙자가 되기 전 독고 씨의 직업은 압구정동 성형외과 의사였다. 그는 의료사고를 일으켰지만 사실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성형외과에 출근했다. 작가는 ‘노숙자가 되기 전의 주인공’을 타인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소통불능인간형으로 창출했다. 아내, 딸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가정은 의료사고 이전에 이미 “가족해체” 상태였다. 그러한 모습을 견디지 못한 가족은 그가 다시 출근한 첫 날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충격을 받은 그는 일을 그만두고 술로 고통을 잊다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가족이 대구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역에 갔다가 혼절하면서 기억상실 노숙자가 되었다. 소지품은 노숙자들이 훔쳐가 그는 자신이 누군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사실이 그의 기억 회복 후 작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밝혀진다. 독고 씨는 코로나가 창궐하여 편의점에서 손 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며 라텍스장갑을 낄 때 자신이 의사였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독고 씨는 과거에 자신이 22세 여성의 성형수술실에서 대리수술을 시키고 그 시간 자리를 비워 고객상담을 하다가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기억을 되살리게 된다.

이와 같이 기억 상실 후 공감 능력을 다시 습득하고 가족과 일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그는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그는 사망한 22세 여성의 묘에 홀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압구정동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비리를 방송사에 제보한 후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2월 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가면서 작품이 끝난다. 대구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가족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독고 씨는 직업과 과거사의 기억을 회복하게 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냉혈한이자 자신과 돈만 아는 비윤리적 인간이었던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게 된 그의 의료지원 대구행은 “죄를 기억하며 사는 방편”³⁷⁾이자 해체된 가족의 일부 복원을 위한 노력의 ‘시작’을 암시한다.³⁸⁾ 과거 돈의 노예이자 자신만 알던 그가 타인과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마주하면서 역지사지의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회복하고 윤리적 인간이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편한 편의점』에서 인간다움의 회복을 추동하는 모종의 동력은 타인의 고통과 처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공감, 배려를 담보한 ‘불편한 말 걸기’에서 시작되었다. 노숙자 선배와 편의점 사장님, 동네 어른들이 노숙자 독고 씨에게 말을 걸고 손을 내밀었듯이 편의점 점원 독고 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면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변화를 경험하고 소통 불능인간이 공감할 줄 아는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의료사고 당시 슬퍼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었지만 이제 의료사고 피해자를 뒤늦게 애도하는 윤리적 인간으로 전신했다. 그런 점에서 윤리적 인간성을 회복하는 갱생의 서사 『불편한 편의점』은 공감과 연대의 부족을 꼬집는 이 시대에 공감의 가치를 강조하고 공감의 회복과 확산을 강조하는 문학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말 걸기’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내포한 윤리적 주체의 제스처인 셈이다.

37) 위의 책, 263.

38) 유의할 점은 이 결말이 전문직이나 정상가족이라는 한국사회의 판타지를 저항 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 다시 만나거나 결합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지난 가을과 겨울을 보낸 ALWAYS 편익점에서, 아니 그 전 몇 해를 보내야 했던 서울역의 날들에서, 나는 서서히 배우고 조금씩 익혔다. 가족을 배웅하는 가족들, 연인을 기다리는 연인들, 부모와 동행하던 자녀들, 친구와 어울려 떠나던 친구들……. 나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주저앉은 채 그들을 보며 혼잣말하며 서성였고 괴로워했으며, 간신히 무언가를 깨우친 것이다.³⁹⁾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인간이 출생과 성장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을 배우지만 개인주의사회에서 자기 안에 갇혀 자기중심적이지 고립된 인간이 되기 쉽다는 것을 환기하는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격심한 생존경쟁과 부유한 삶의 지향이 조건이 된 현대사회에서 그 고립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린 ‘소통불능인간’이 된다. 이는 다양다기한 가족해체와 가족갈등을 낳았다. 그리고 가족유대와 가족돌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의사가 노숙자가 된 소설의 예는 조금 예외적이지만) 누구나 노숙자가 될 여지가 있다. 주지하듯 한국은 자살율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의 사회이다.

요컨대 ‘편익점’은 후기자본주의의 현 시대를 조망하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이기에 작품 배경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처소로서 많은 작품에 등장해 왔다. 그러다보니 편익점 점원뿐만 아니라 고객 등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고립된 인물이 작품의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동시대 소통과 생존을 위한 도움, 공감 등의 문제를 다루기에 『불편한 편익점』이 유용한 가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작가에게 소통은 관계를 의미했고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말 걸기’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시작이 인간의 타인 이해력을 높이고 자신의 공감 능력과

39) 김호연, 앞의 책, 252-253.

인간다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한 도움의 토대가 되었다. 한 인간의 공감의 회복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확산된다. 그런 점에서 『불편한 편의점』은 가족, 본명, 직업 등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중장년의 인물이 마치 아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세상과 타인의 고통에 실감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워 자신과 이웃, 가족이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사를 구축해 독자에게 역지사지의 공감과 소통법, 관계 맺기를 전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회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의 가치와 관련해 『불편한 편의점』을 주목하면, 이 소설은 자기중심성의 문화에서 탈피를 꾀하는 공감 인문학에 일조하는 문학작품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IV. 나가며 : 공감의 회복, 확산

주인공 독고 씨는 기억 상실 후 노숙자 선배(독고)와 TV를 통해 다양한 삶의 양상과 희로애락을 새롭게 배운다. 신자유주의하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회’는, 구성원에게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도우라는 도덕적 요구를 하는 ‘말 걸기’를 해온다. “우리는 ‘말 걸기’의 대상이 되는 상황, 다른 어디로부터 오는, 때론 이름 없는 그 어떤 곳에서부터 오는 요구, 우리의 의무를 표명하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요구”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적이던 독고 씨가 기억 상실 후 삶을 새롭게 배우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그 권위와 구속을 일부 내면화하게 되고 직접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점점 공감하는 윤리적 인간이 되어 간다. 이러한 사회의 도덕적 구속력하에서 그는 편의점에서 위태로운 타인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영향을 받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다가 그 ‘얼굴’이 발산하는 도덕적 명령에 책임감을 느끼고 결국 ‘말 걸기’를 결단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윤리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⁴⁰⁾ 그런 점에서 ‘말 걸기’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공감, 조력,

사회도덕을 포괄하는 사회의식의 명령이며 윤리적 주체의 행동이자 윤리적 주체의 탄생을 의미했다.

술에 찌들어 4년간 노숙자 생활을 한 독고 씨가 건강과 기억을 회복하고 다시 보통의 사회인으로 돌아오는데 소설의 시간인 3달여(2019.11-2020.2) 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사회의 최저층으로 떨어진 개인이 타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인으로 돌아오는데 3개월이면 가능했다. 그만큼 작가는 타인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한 개인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있다. 또한 그 도움을 받은 독고 씨 역시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사회적 지지가 현저히 부족한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이웃 혹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존재와 유대가 개인의 고통과 고립, 빈곤, 자살가능성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 공감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확산된다.

한국은 2021년 9월 말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40.1%를 차지하고 2인 가구는 23.8%였다.⁴¹⁾ 1~2인 가구가 한국의 핵심 가구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편의점이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그만큼 단절되고 파편화된 삶의 환경 속에 있다. 『불편한 편의점』은 신자유주의하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의 ‘정상’ 혹은 ‘보통’의 삶의 붕괴 상태를 편의점을 둘러싼 여러 등장인물의 직장과 가족 관계를 통해 핵심적으로 지적하면서 고립되고 소외된 개인이 타인에게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사고를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전 생애에 걸쳐서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전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다.

소통하고 공감하며 조력하는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 『불편한 편의점』은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익명성의 소비 공간인 편의점에 익숙한 도시인에게 ‘이웃

40) Judith Butler (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윤조원 번역 (2018). 위태로운 삶. 서울: 필로소닉, 185-215 참조.

41) 1인 가구 40% 첫 돌파... 4인 가구는 20% 밑으로 (2021. 10. 6). 서울경제; 2020년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31.7%였다. 그만큼 빠르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 소통하는 소비 공간의 판타지'(과거, 정감 있는 옛 동네 슈퍼)의 문화가 지금 여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에게 환기하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재발견한 것이다. 다만 『불편한 편의점』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상상을 통해 이전의 동네 슈퍼, 친밀한 이웃들이 이용하는 동네 상점(만물상 같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고 도시문명의 생활방식도 바뀌었으며 개인도 이미 개인주의화 되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작품은 편의점의 인간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원래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교감 없는 표정과 감정으로 일관하는 점원들로 채워졌다. 파는 사람과 구매자 사이의 인격적인 인사와 대화가 사라지고 편의점에서 서로 아는 척 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가 됐다."⁴²⁾는 관점은 고객과 점원의 관계에 중점을 둔 익명성의 소비 공간으로서의 편의점과 소비행태를 설명할 때 적합하다. 하지만 드라마 <해방일지>(2022)가 편의점 점주와 편의점 담당 본사직원의 밀접한 관계를 가시화한 사례처럼, 현실에는 익명의 고객이 알지 못하는 여러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불편한 편의점』은 본사직원을 제외하고 편의점 사장, 점원, 고객을 모두 시선에 넣고 개인화된 시대의 삶과 관계, 공감의 문제를 고민한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빈부를 떠나 존재하는 생활형 상점이 된 편의점에서 '개인의 삶과 관계의 흔적'이 축적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편의점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차이, 사회구조와 인간군상의 관계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말 걸기'를 도입하고 인간의 삶과 그 삶의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소설 제목 '불편한 편의점'이란 일차적으로 물품이 적은 편의점의 불편함을 가리키고 이차적으로 노숙자 출신의 불편한 점원이 말을 거는 '불편한 편의점'을 의미했지만, 타인의 관심과 (윤리적) '말 걸기'가 불편했던 '고객과 다른 점원'이 오히려 독고 씨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 '불편한 편의점'이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과 장소로 일부 바뀌었다.

42) 전상인 (2014). 편의점 사회학. 서울: 민음사, 83.

작가는 한국이 이러한 관심과 공감, 인간적 유대가 확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간혹 자살을 생각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는 독자에게 위로의 서사를 전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서로 공감하며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작가가 그것을 집착적으로 강제하는 입장은 아니다. 김애란이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서 ‘말 걸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통해 소통과 공감, 관계의 형성불가능의 구조를 보여줬듯이, 『불편한 편의점』의 ‘불편한 말 걸기’를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소통과 공감, 도움의 가능성이 애초에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작가가 작품에서 인생은 “여정”이라고 했듯이 독고 씨가 ‘청파동 편의점에서’ 도움을 주고받은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2019년 11월부터 3개월간이다. 그 이후 그가 탄 대구 의료지원행 기차는 공간과 인간관계의 변화를 암시한다. 새로운 삶과 인연이 전개될 것이다. 『불편한 편의점』에서 손님과 점원 등 사람들이 편의점을 ‘거쳐가듯’, 작가는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스쳐가는’ 인연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지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인간됨을 독자에게 권하고 있다.

【주제어】 노숙자, 공감, 가족해체, 역지사지, 소통

[참고문헌]

- 광양 편의점서 40대가 흥기 휘둘러 점원 1명 숨지고 1명 부상. (2022. 2. 19). KBS NEWS.
- 김애란 (2003). 나는 편의점에 간다. 문학과 사회. 16(3). 문학과지성사, 1155-1176.
- 김애란 (2019). 달려라, 아버. 파주: 창비.
- 김호연 (2021). 불편한 편의점. 고양: 나무옆의자.
- 박영란 (2016). 편의점 가는 기분. 파주: 창비.
- [베스트셀러] 소설 '불편한 편의점' 4주째 1위. (2022. 3. 11). 연합뉴스
- 소설 '작은 장르' 된 편의점 문학. (2017. 1. 25). 경향신문.
- 양어람, 이행선 (2017). 2010년대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점원, 사회, 문화 - 무라타 사야카 (村田沙耶香)의 『편의점 인간』과 박영란의 『편의점 가는 기분』. 한국학연구, 63, 195-230.
- 2019~2020년 편의점산업현황: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출처: https://cvs.or.kr/bbs/board.php?bo_table=board1&wr_id=10
- 장귀연 (2011).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전략. 마르크스주의연구. 8(4), 303.
- 전상인 (2014). 편의점 사회학. 서울: 민음사.
- 전혜원 (2021).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파주: 서해문집.
- '제로섬 게임' 편의점 가맹점 쟁탈전 뜨겁다. (2022. 2. 17). 머니S.
-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하는 '자율규약', 3년 더 연장됐다. (2021. 12. 29). 머니투데이.
- 편의점 더 안전해진다... 긴급 신고벨·범죄예방디자인. (2017. 4. 26). News1.
- 편의점 알바 죽음... 본사가 사과 보상하라. (2017. 4. 13). News1.
- 최은주 (2017). 감정 있습니까?. 서울: 은행나무.
- Judith Butler (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윤조원 번역(2018). 위태로운 삶. 서울: 필로소닉.
- 村田沙耶香 (2016).コンビニ人間. 김석희 번역(2016). 편의점 인간. 파주: 살림
- ママ・シニア：外国人の採用と教育、定着法(月刊コンビニ) (2017). 東京: 商業会, 20-21.

[국문초록]

2021년 4월 김호연의 장편 『불편한 편의점』이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서울역 노숙자 독고 씨가 70대 여성의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서사가 전개된다. 노숙자 출신의 사내가 편의점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주는 감동 서사의 핵심인물이다. 시간적 배경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3개월이다. 작가는 편의점을 매개로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주인공은 기억 상실 후 노숙자 선배와 TV를 통해 다양한 삶의 양상과 희로애락을 새롭게 배운다. 신자유주의하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회는, 구성원에게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도우라는 도덕적 요구를 하는 '말 걸기'를 해온다. 우리의 의무를 표명하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요구하에서 개인은 살아가고 있다.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적이던 주인공이 기억 상실 후 삶을 새롭게 배우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그 권위와 구속을 일부 내면화하게 되고 직접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점점 공감하는 윤리적 인간이 되어 간다. 이러한 사회의 도덕적 구속력하에서 그는 편의점에서 위태로운 타인의 '얼굴'을 발견하고 바라보다가 그 '얼굴'이 발산하는 도덕적 명령에 책임감을 느끼고 결국 '말 걸기'를 결단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윤리적 주체가 된다. 그런 점에서 '말 걸기'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공감, 조력, 사회도덕을 포괄하는 사회의식의 명령이며 윤리적 주체의 행동이자 윤리적 주체의 탄생을 의미했다.

[Abstract]

Uncomfortable 'Talking' and Convenience Store, the Recovery and Spread of Empathy

– Kim Hoyeon, *Inconvenient Convenience Store* (2021)

Lee, Haengseon (Kookmin University)

Kim Ho-yeon's novel *Inconvenient Convenience Store* was published in April 2021. This work is on a relationship in which Dokgo, a homeless man at Seoul Station, finds the wallet of a woman in her 70s, and the story unfolds when he starts a night part-time job at a convenience store run by her. The homeless man is a key figure in a moving narrative that positively influences and changes convenience stores and people. The time background is three months from November 2019 to the end of February 2020. What did the writer want to convey to the reader through convenience stores? The main character learns various aspects of life, joy and sorrow through TV with a homeless colleague after memory loss. Even in the era of individualism under neoliberalism, society has been "talking" to its members to make moral demands to help others in trouble. Individuals are living with the demands of expressing their obligations and putting pressure on them. As the main character, who was thoroughly self-centered, learns life anew after memory loss, he internalizes some of the morality, authority, and restraint required by society, and receives help directly from others, becoming an ethical human who gradually sympathizes. With the moral constraints of this society, he finds and looks at the "face" of another person at stake at a convenience store, feels responsible for the moral commands the face emits, and eventually decides to "talk" and becomes an ethical subject to exchange help. In this regard, "talking" was not just communication, but a social consciousness command that encompasses empathy, assistance, and social morality, and meant the birth and behavior of ethical subjects.

[Keywords] Homeless, Empathy, Family Breakup, Communication,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논문투고일: 2023년 02월 25일 / 논문심사일: 2023년 04월 07일 /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9일

【저자연락처】 sh8017@naver.com